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4년 10월 뉴스레터 vol. 80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우고비우고	나는 마음 사진첩 여행 준비 중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추모는 어디에서나
숫자로 보는 채비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조력사망 법제화에 찬성!
채비학교 특강	장례준비 이렇게 하세요



## 나는 마음 사진첩 여행 준비 중



‘마음 사진첩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여행의 시작은 애도 모임이었다.

재작년 이맘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공지를 보고 ‘작은모임’ 신청서를 냈다. 엄마의 장례를 잘 치르고 싶어서 가입한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한다고 하니 반가웠다. 당시 워크숍에서 만난 상담사에게 제안해 둘이서 애도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공지를 보고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애도 작업을 했다. 우리의 애도는 이미 떠나보낸 가까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다독이고 또 다가올 이별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었다.

애도 모임은 좋은 기회였다.

나는 이후에 모의 추모식도 경험했고, 애도 작업을 진행하면서 감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또 감정이 몸과 연결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몸 작업(소마틱스)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또 하나의 계기는 사진첩을 만들면서 느낀 변화였다.

사진 파일을 실물 사진으로 인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메일이 왔다. 사진첩 할인 소식이었다. 그 사진첩은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어서 더 좋았다. 엄마가 집을 떠나 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된 후 내 폴더에 쌓인 엄마 사진들을 정리할 기회다 싶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엄마 사진첩을 파일로 만들었다.

우선 폴더에 있는 6년 치 파일 중에서 사진첩에 넣을 것들을 골랐고, 컴퓨터 화면 속에서 그 사진들을 이리저리 배치하고 배경을 꾸몄다. 이 사진 저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여러 기억이 떠올랐고 다양한 감정이 지나갔다. 사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발견했다. 며칠 후 택배로 받은 사진첩은 나에게 주는 연말 선물이 되었고 또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

지난달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작은모임 신청서를 다시 냈고 내 기획안도 통과되었다.

내 계획은 감정 작업과 사진첩 만들기를 결합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버지 사진을 모으고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내 안의 감정을 만나는 것이다. 간직하고 싶은 좋은 감정은 더 깊이 느껴보고, 피하고 싶은 감정은 가만히 들여다본다. 또 모호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에 귀 기울인다. 내 감정이 하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듣는 작업이다.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몸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도 첫날 소개할 계획이다.

사진첩은 두껍고 큰 카드처럼 한 번 접히고 받침대도 있는 스탠딩포토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엄마가 손을 흔드는 사진이 있다. 지난 가을에 엄마 추모식을 치르고 나서 마지막 4년의 모습과 추모식 광경을 담아 만든 스탠딩포토다. 나는 종종 소리 내어 엄마한테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사진 속 엄마와 미소를 주고받는다.

이번 여행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이 특히 크다.

한 번 가 본 여행지에 다른 사람들과 한 번 더 가는 기분이다. 함께하는 애도와 치유 작업에 대한 기대를 안고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

김은자 조합원

## 추모는 어디에서나



### 채비추모장례의 공간 확정성을 보다

8월에는 공간채비가 아닌 곳에서 추모장례식을 치루었다.

안타깝게도 공간채비에 다른 행사가 예약되어 있었거나, 가족의 상황이 공간채비에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 인근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유족은 아버지의 추모식도 원했다. 채비플래너가 장례식장으로 출장을 나갔다.

접객실에는 채비플래너의 안내를 따라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런히 전시해 두고, 집에서 작은 모니터 2대를 가지고 와서 가족들이 제작한 슬라이드 영상을 틀어두었다. 첫날 현장에 오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유족들이 너무 준비했다.

채비플래너는 저녁 즈음에 큰 모니터를 빈소에 셋팅하고 5~6명의 가족과 또 그만큼의 조문객을 모시고 빈소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많이 나누었다.

아버지는 ‘보리밭’이라는 가곡을 좋아하셔서 함께 들었다. 젊은 조문객이 그것을 ‘메밀밭’으로 기억해서 잠깐 함께 웃었다. 조문하려고 와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참관했다.

또 한 어머니의 추모식은 화장장 유족 대기실에서 이루어졌다.

공간채비에 공간이 없어서...너무나 죄송한 경우다. 하지만 그 좁은 유족 대기실에서 20여 명의 유족들이 무릎을 붙이고 앉아서 애도하고, 기억하고, 추억을 나누었다. 한 삼촌은 기타를 치며 노사연의 ‘만남’을 불렀다.

많은 조문객을 모시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모인 어머니의 형제와 사촌들과 함께 유족은 참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듯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무감하게 태워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지 않았겠는가!

공간채비를 벗어나, 유족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장에서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작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후로 채비 추모식을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생겼다. 2020년 6월부터 시작한 채비 추모식 장례가 최근에 40여 건이 넘어가고 있다.

만 4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성장이 느리게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채비 추모장례식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시되는 포맷은 단일하지만, 고인의 가족과 지인은 자신의 상황에 형편에 맞추어 진행했다. 채비 추모식 장례는 그만큼 유연하다. 시중에 상조 상품이 '패키지'로 묶여서 변화도 어렵고,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기는 더욱 어려워 비용과 형식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하루 빈소를 차리고 8~10시간 조문받으며 추모식 진행, 빈소 없이 추모식만 진행, 때로는 이를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 맞이하며 추모식, 마을에서, 카페에서, 추모식 없이 조문보나 유품 같은 애도장치를 이용한 빈소 세팅으로 조문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이 유족이 되기도 하고, 가족 중에 막내가 상주가 되고, 일곱 딸이 상주를 하고, 친구들이 상주를 하는 추모식도 했다. 장례를 치른 후 49재에 추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어떤 형태와 서비스를 고집하지 않고 유족이 원하는 방식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연하게 유족의 필요를 받아들이고 만들어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애도의 순간들을 직면하게 되었고, 채비의 애도 자산이 쌓여왔다.

지금도 추모장례의 사례는 계속 쌓이고 있다.

바라기는 고인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자신의 집에서, 활동하던 공유공간에서 추모식을 쉽게 진행하고 싶다. 한겨레두레의 장례지도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인이 살던 곳에서 마을 채비플래너와 이웃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다.

한 사람의 죽음에 온 마을이 나서는 걸 보고 싶다. 죽음도 돌봄 받고 따뜻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채비플래너 전승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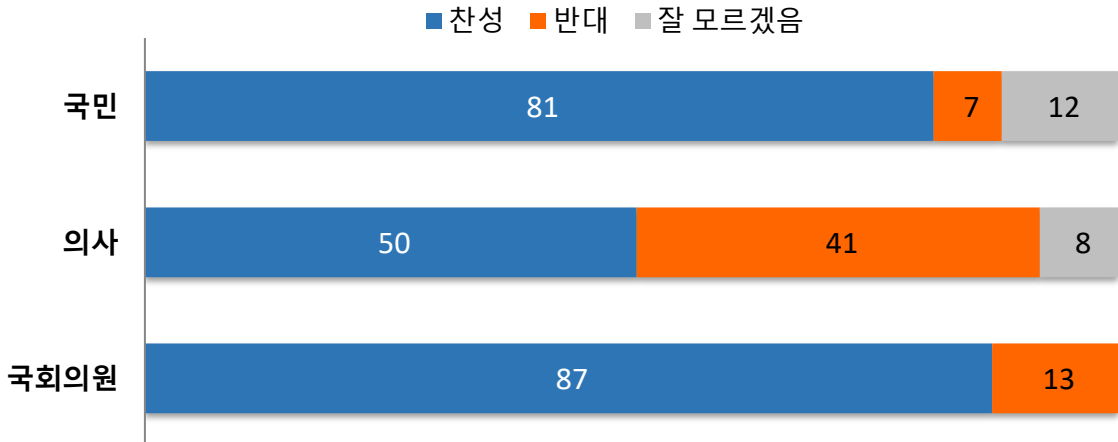


1

조력사망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조력사망 법제화에 찬성!

조력사망 법제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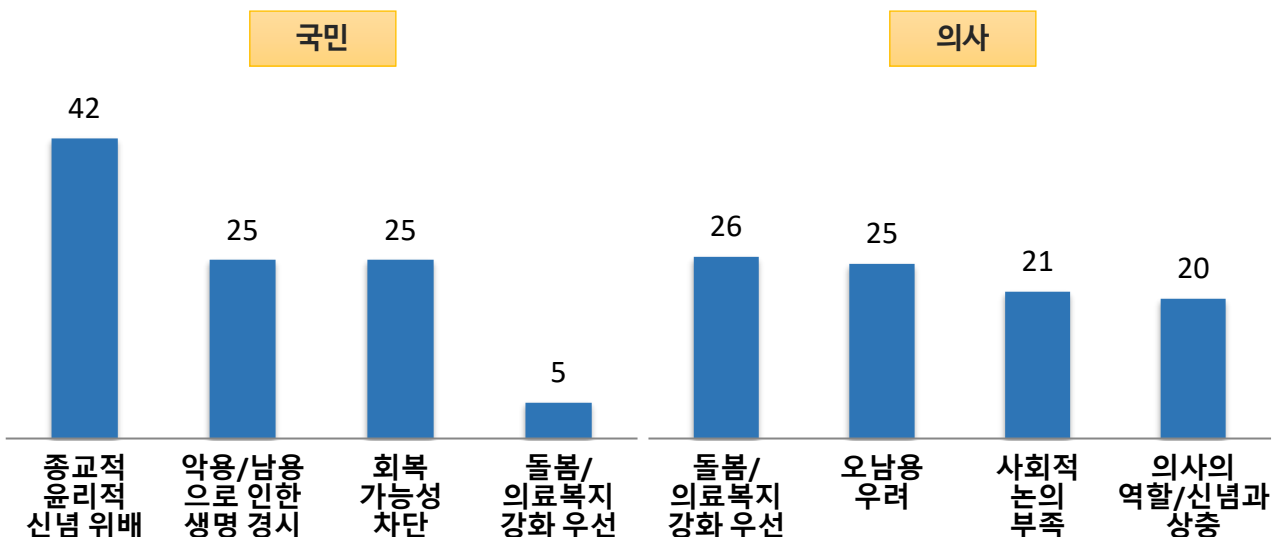


2

조력사망 법제화 반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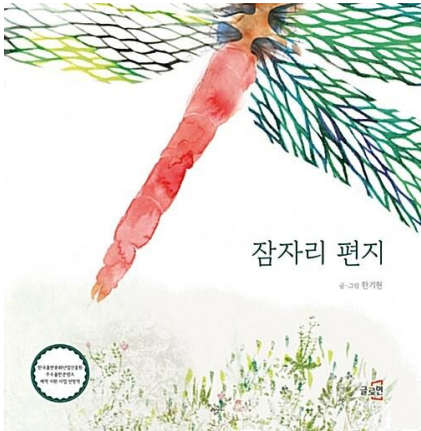
국민은 ‘종교적, 윤리적’이유, 의사는 ‘돌봄/의료복지 강화 우선’!

조력사망 법제화 반대 이유 (조력사망 법제화 반대자, 상위 4위, %)



\* 출처: 서울신문, 의사조력사망에 관한 국민,의사 인식, 2023.07.11.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 한국의료윤리학회한 국정신중양학회/대한노인병학회 소속 의사 215명, 온라인 조사, 2023.02.14~15, 04.02.~05.01.)

## 아이와 고추잠자리가 함께 그려가는 따뜻한 만남 이야기



### 잠자리 편지

한기현 | 글로연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빠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뒤, 시골 할머니 댁에 맡겨진 아이가 엄마를 그리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다리는 것뿐이었거든요. 엄마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아이는 어떻게 달래어 갈 수 있을까요?

저수지 안에서 물에 비친 하늘을 보며 날기를 꿈꾸던 고추잠자리 유충에게 드디어 하늘을 힘차게 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냥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와 하늘 빼곡히 힘차게 나는 잠자리의 만남은 아이로 하여금 엄마께 편지를 쓰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이는 손톱만 한 편지에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열 손가락 가득 잡은 잠자리에 매달아 날려보내지요.

엄마께 그 편지가 전해지길 기대하면서요. 그 이후, 아이는 잠자리를 볼 때마다 편지가 잘 전해졌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늦여름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아이는 잠자리에게 답을 들으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며 둘의 친밀감은 점점 더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리를 맞은 채 꿈쩍하지 않는 잠자리를 본 아이는 울음을 터트리고 맙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꺾꺾 눌러왔던 눈물이 얼어 있는 잠자리를 보자 터져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는 이내 잠자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안아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이의 따뜻한 숨이 전해지자, 잠자리는 서서히 날개를 움직이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 앞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요. 마침내 엄마께서 오신 거예요!

잠자리의 언 몸매 온기를 전해준 아이의 따뜻한 손과 엄마의 따뜻한 가슴이 포개지고, 아이는 잠자리가 자신의 편지들을 엄마께 전해드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 [특강] 장례 준비 이렇게 하세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가족의 장례를 치를 즈음이면 막막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혹시라도 너무 모르고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장례지도사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건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장례식 준비에 관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장례지도사를 하고 있는 강사를 모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상조 시장의 현황과 장례 진행 과정 등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교육 소개

- 대상: 장례가 임박한 분, 미리 장례를 준비할 분, 장례 상담이 필요한 분 등
- 일정: 2024년 10월 29일(화) 오후 7시~ 9시
- 교육 정원: 총 30명 내외(강의는 무료이며 선착순 마감)
- 교육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신청 링크: <https://forms.gle/C3UHd8S7aGuhvBB96>
- 문의: 02)722-9517

### ■ 프로그램

- ① 상조 시장 현황 알기
- ② 장례 진행과 과정 이해
- ③ 사전준비와 사후에 정리할 일들
- ④ 질의 응답

### ■ 강사 소개

공운경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장례지도사



## [채비플랜] 슬픔을 휴식하기

채비장례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치르는 장례식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비플랜’은 이를 위한 조합원 대상 프리미엄 강좌며 채비장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준비합니다.

채비플랜\_슬픔을 휴식하기는 빠르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과 이별이 의미있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을 다음 강좌입니다. 이별과 이별 후 슬픔 끌어안고 휴식하기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과 몸으로 느껴보고자 합니다. 강좌가 필요한 조합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교육 소개

- 교육내용: 채비 추모식과 애도 명상
- 대상: 고인과 가족 중심의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려는 분, 이별과 상실을 치유하고 싶은 분들
- 일정: 2024년 11월 7일(목)/ 11월 14일(목) 오후 7시~ 9시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인원: 15~20명(선착순 마감)
- 신청 링크: <https://forms.gle/6J2SkZNoDzB8d9Y8A>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 프로그램

차수	주제	내용	준비물	강의 날짜
1강	채비장례와 추모식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비장례란</li> <li>- 추모식 준비하기의 실제</li> <li>- 애도 과정(추도사, 부고 문자, 메모 리얼포스트 작성, 유품과 생애사 등)</li> </ul>	사진 준비	11/7(목) 저녁 7~9시
2강	슬픔 끌어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비장례와 추모식 준비흡열기와 감정정화호흡</li> <li>- 슬픔과 함께 휴식하는 알아차림 명상</li> <li>- 몸과 마음을 사랑으로 이완하는 자애명상</li> </ul>	간편한 복장	11/14(목) 저녁 7~9시

## 2024년 9월

김미경 조합원 본인상  
하태선 조합원 모친상  
유영각 조합원 부친상  
손계용 조합원 모친상  
김태은 조합원 부친상  
이은화 조합원 시모상  
안은령 조합원 모친상

복미정 조합원 모친상  
박규수 조합원 부친상  
김만수 조합원 부친상  
김명희 조합원 시누상  
이정호 조합원 부친상  
사근숙 조합원 부친상

최흥엽 조합원 빙모상  
하정혜 조합원 부친상  
이승희 조합원 부친상  
정훈 조합원 빙모상  
이성근 조합원 모친상  
조철희 조합원 부친상

## 2024년 8월

최수혁 조합원 부친상  
안진희 조합원 부친상  
이정은 조합원 조모상  
김영근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희진 조합원 모친상  
박재완 조합원 모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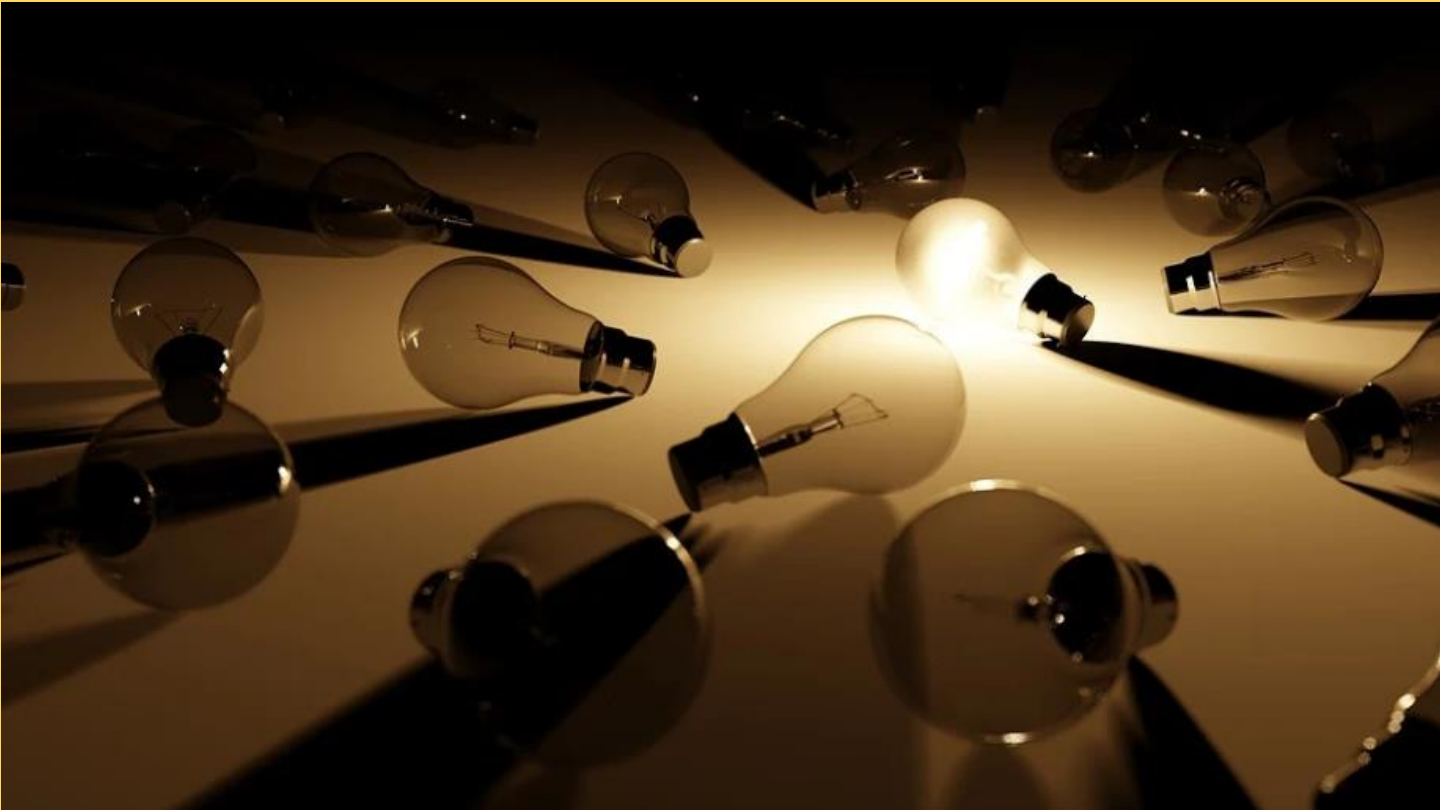
하은지 조합원 모친상  
서미현 조합원 모친상  
이진영 조합원 부친상  
조전홍 조합원 부친상  
한성민 조합원 모친상  
오규열 조합원 빙부상  
강민수 조합원 부친상

박재영 조합원 부친상  
인태영 조합원 모친상  
이오철 조합원 빙모상  
강효민 조합원 조모상  
김중구 조합원 장모상  
이철손 조합원 본인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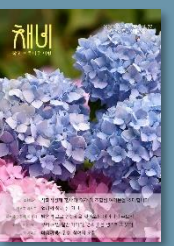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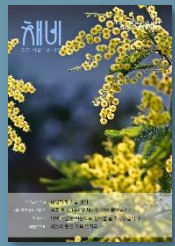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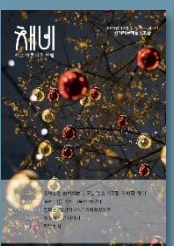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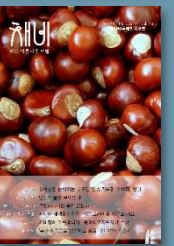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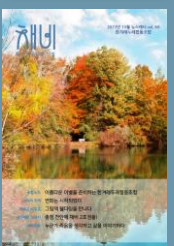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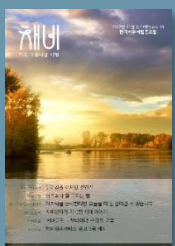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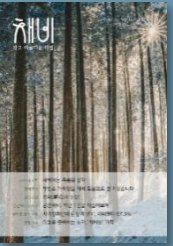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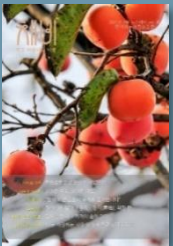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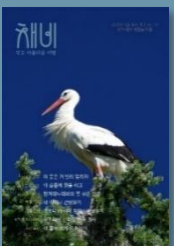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